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10일(한국시간)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1회 2루타를 때리고 출루한 뒤 상대 투수 보크 때 홈을 밟으며 팀 동료 카를로스 고메즈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추신수, 개인 최다 출루 달성

### ‘출루 본능’ 안타 3개·볼넷 3개 6출루 기록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한 경기 5차례 이상 출루하며 출루 본능을 발휘했다. 추신수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주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인디언과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3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 5출루 이상 활약 한 것은 개인 통산 11번째다. 신시내티 레즈 소속이었던 2013년 4월 21일 마이애미 밀린스전에서 안타 3개와 볼넷 3개로 6출루를 달성한 것이 개인 최다 출루 기록이다. 5출루

경기는 앞서 9차례 달성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53에서 0.258(379타수 97안타)으로 올랐다. 출루율은 0.369로 팀 내 선두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부터 메츠 선발 리파렐 몬테로를 상대로 우중간으로 향하는 2루타를 때린 뒤 투수 보크 때 홈을 밟아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시즌 65번째 득점. 2회와 3회에는 몬테로를 상대로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 걸어 나갔다. 5회에는 바뀐 투수 조쉬 스모커에게 2루수 방면 내야안타를 때려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7회 삼진을 당했지만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체이스 브래드포드를 상대로 3번째 볼넷을 얻어내며 5출루 경기를 완성했다. 추신수는 8월 들어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달 들어 8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3(30타수 10안타)로 타격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비록 지난달 22일 텀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홈런은 때려내지 못했지만 8월 들어서만 4번째 멀티히트 경기를 하는 등 자신감 있게 타석에 임하는 모습이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과 선발 마틴 페레스의 8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메츠에 5-1로 승리했다.

/김민근기자

# 박병호, ‘빅리그행 또 불발’

마이너리그에 머물고 있는 박병호(31)가 최근 관측은 타격감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 트윈스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박병호는 10일(한국시간) 부상자 명단에 오른 투수 아달베르토 메히아 대신 산하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뛰고 있는 내야수 케니스 바르가스(27)를 메이저리그로 콜업했다. 바르가스는 시즌 개막 전부터 로스터 한 자리를 놓고 박병호와 경쟁했던 상대다. 시즌 초 박병호가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하는 사이 바르가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다. 6월 이후 박병호의 타격감이 살아난 이후에도 우선 순위는 바르가스였다.

바르가스는 올시즌 메이저리그에서 5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4 8홈런 30타점 출루율 0.291에 그쳤다. 박병호는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만 88경기에 출전, 타율 0.261 9홈런 44타점 OPS 0.741로 바르가스와 비교해 타율 면에서는 나은 성적이다. 타격감을 되찾은 7월 이후에는 38경기에서 타율 0.285 7홈런 23타점 OPS 0.752로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다. 그럼에도 바르가스는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은 반면 박병호는 여전히 산하 로체스터 유니폼을 입고 있다. 두 선수의 희비가 또 다시 엇갈린 날 박병호는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콜럼버스 인디언스와 홈경기에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앞선 2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바르가스의 콜업 소식 이후 멀티히트와 함께 타점을 추가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박병호에게는 40인 확대 로스터가 가동되는 9월이나 빅리그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김민근기자

# “이란전 손흥민, 기성용 모두 부르겠다”

### 신태용 감독,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9차전 소집 명단 포함 선언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재환에 매진중인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을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9차전 이란전 소집 명단에 포함 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7 KEB하나은행 FA컵 8강 수원 삼성과 광주FC전을 관전하기 위해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신태용 감독은 “현재 부상 중인 기성용은 소속팀 스완지시티와 잘 의논해 대표팀에 부르려 한다. 경기에 뛰지 못하더라도 주장의 역할을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도 월드컵 최종예선에 출전하기에 충분한 몸 상태로 회복했다. 소집 뒤 몸 상태를 확인하고 경기 투입 시점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 후반 교체로라도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태용 감독은 지난 2일 “이란전과 우즈베키스탄전을 대비해 최대 20명의 선수를 대표팀에 부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태용 감독은 “이번 두 경기에서 수비



9일 오후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KEB 하나은행 FA컵 8강전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경기. 신태용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위주의 플레이를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대표팀 선발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말 K리그 경기에서 해당 선수들이 다치지 않을 경우 현재 머릿속에 있는 선수들을 선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오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을 상대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9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신태용 감독은 오는 14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 엑소 4집, 96만장 판매 ‘퀵드러플 밀리언셀러’ 목전

대세 그룹 엑소의 정규 4집 ‘너 워’의 음반 판매량이 96만장에 육박, 퀵드러플 밀리언셀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발매된 ‘너 워’는 이날 발표된 7월 가온 월간 차트에서 총 95만9417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음원 위주로 재팬의 최근 가요계에서 엑소는 앨범 판매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팀이다. 지난 2013년 말 정규 1집 ‘XOXO’가

리퍼하기까지 판매량 100만장을 넘기며 가수 김건모 7집 그룹 ‘good’ 4집 등이 발표된 2001년 이후 12년 만에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바 있다. 이후 2·3집 모두 앨범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며 트리플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는데 4집까지 100만장을 넘기면 4집의 연속 앨범 판매량이 이례적으로 모두 100만장을 넘기는 ‘퀵드러플 밀리언셀러’가 된다. 이번 4집 ‘너 워’는 이와 함께 가온 주간 차트(7월 30일~8월 5일)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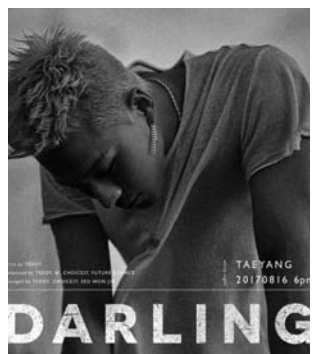
디지털 종합 및 앨범 종합 부문 모두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음원 음반 쌍끌이 1위 행진을 이어갔다.

/뉴시스

# 태양, 프로듀서 테디와 협업... 새 앨범 타이틀 ‘달링’

가수 태양과 프로듀서 테디가 또 한번 협업한다. 10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달 발표되는 태양의 새 앨범 타이틀 곡은 ‘달링(Darling)’으로 확정됐다. 이 노래는 ‘난 바리바’ ‘웨어 유 앳(WHERE U AT)’ ‘웨딩드레스’ ‘눈코 입 등에서 태양과 호흡을 맞춘 테디가 작사·작곡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날 YG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달링’ 포스터를 공개했다. 머리를 노랑색 물들인 태양이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 곡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한편 ‘달링’ 뮤직비디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알래스카에서 촬영했다. 웅장한 느낌의 곡 분위기에 맞게 대 자연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은 오는 16일 정규 3집 앨범 ‘화이트 나이트(WHITE NIGHT)’를 내놓는다. 태양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건 2014년 6월 ‘라이즈(RISE)’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